

# 가녀린 꽃잎...바람 타고 코끝 스치는 아찔한 향기

초여름의 눈부신 햇살이 남도의 대지를 달구기 시작하는 6월, 고흥군청 앞에 우뚝 솟은 봉황산 산길을 오르다 보면 발걸음을 붙잡는 질고 달콤한 향기를 만나게 된다.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치는 그 아찔한 향기의 진원지를 찾아 고개를 돌리면, 바위 절면이나 높은 나무의 밑동을 촘촘히 감싸고 오르는 짙녹색의 덩굴식물을 마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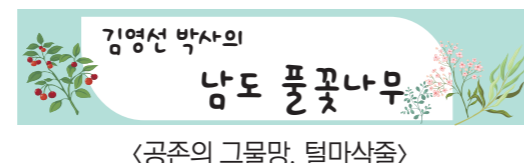
초록의 잎맥 사이로 바람개비 모양의 새하얀 꽃들을 흐드러지게 피워낸 이 식물이 바로 털마삭줄이다. 고흥군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봉황산의 생태계를 보이지 않게 엮어주는 이 강인한 덩굴식물은, 우리에게 '연결'과 '공존'이라는 위대한 생태학적 진리를 조용히 스며들게 한다.

털마삭줄은 협죽도과에 속하는 상록 덩굴나무로, 주로 우리나라 남부 지방과 제주도·울릉도 등의 따뜻한 해안가나 숲속 바위지대에서 자생한다. 일반 마삭줄과 비슷하지만, 줄기와 잎 뒷면, 잎자루 등에 미세한 털이 보송보송하게 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미세한 털은 결코 우연한 장식이나 아니다. 바다와 인접한 고흥의 거친 해풍과 염분, 그리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식물체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고도의 생태공학 적 '보호막' 역할을 한다.

'마삭(麻索)'이라는 이름은 삼(麻) 자에 노끈(索) 자를 쓴다. 과거 선조들이 질기고 튼튼한 이 식물의 줄기를 마치 삼베 노끈처럼 그물이나 바구니를 엮는 데 사용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끊어질 듯 결코 끊어지지 않는 강인한 하드웨어를 지닌 데다 보호용 솜털까지 두른 털마삭줄은, 5-6월이 되면 순백의 바람개비 꽃을 피워 숲 전체를 감미로운 제스민 향기로 가득 채운다. 이 달콤한 향기는 가시광선이 닿지 않는 짙은 숲의 하층부에서도 수정 매개 곤충들을 정확히 유인해 내는 고도의 화학적 생태 신호다.

생태공학적으로 털마삭줄은 지형의 한계를 극복하는 완벽한 설계도를 보여준다. 줄기에서는 공기 뿌리, 즉 '기근(Aerial root)'이 나와 바위나 다른 나무껍질에 단단히 달라붙는다. 이는 척박한 수직의 벽을 오르기 위해 자신을 고정하는 강력한 '생태적 앵커(닻)' 역할을 한다. 주목할 점은 털마삭줄

## 초록잎 사이 바람개비 모양 새하얀 꽃 피워내



의 공존 방식이다. 다른 나무를 타고 오르다고 해서 숙주의 양분을 빼앗는 기생식물이 아니며, 훑이나 환삼덩굴처럼 다른 나무를 질식시켜 죽이지도 않는다. 그저 햇빛을 향해 조금 기대어 자라는 척색의 지혜를 발휘할 뿐이다. 수직으로는 나무를 타고 오르고, 수평으로는 지표면을 웅덩이처럼 덮는 '그라운드 커버(Ground cover)' 역할을 수행하며 토양의 수분 증발을 막고 비바람에 의한 침식을 방지한다. 털마삭줄은 사계절 푸른 잎을 유지하는 상록수지만, 한겨울이 되면 잎이 붉은 자줏빛으로 단풍이 드는 경이로운 생리적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엽록소의 활동을 줄이고 안토시아닌 색소를 합성해 세포 내의 삼투압을 높이는 생존 기제다. 스스로 부동액을 만드는 것에 더해, 줄기와 잎을 감싼 미세한 털들은 차가운 복사열을 막아주는 천연 단열재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이러한 상록 덩굴의 존재는 겨울철 숲 생태계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잎이 모두 떨어진 앙상한 숲속에서, 바위와 나무 밑동을 덮고 있는 털마삭줄의 뽀뽀한 털들은 흑한을 피해야 하는 작은 곤충과 파충류, 조류들에게 완벽한 은신처와 보온 덮개가 되어준다. 가장 추운 계절에 가장 따뜻한 생태적 방패가 되어주는 셈이다.

최근 기후위기와 도시화로 인해 도심 생태계의 복원력이 화두가 되면서, 서양송악이나 아이비(Ivy) 같은 외래 덩굴식물들이 조경용으로 무분별하게 식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땅의 기후와 토양, 특히 해안가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털마삭줄이야말로 외래종을 대체할 'K-조경'의 훌륭한 자원이다. 콘크리트 벽면이나 생태공원에 털마삭줄을 활용한 수직정원을 조성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식막한 도심에 자연의 향기를 불어넣는 자

연기반해법(NbS)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고흥군 봉황산을 오르며 만나는 털마삭줄의 촘촘한 그물망은 우리 지역의 중대한 시대적 전환점 앞에서 깊은 울림을 준다. 다가올 전남광주통합시의 출범은 단순히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두 지역이 어떻게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공존의 시험대'다. 털마삭줄은 척박한 바위벽이나 높은 나무의 밑동을 오를 때 결코 상대의 숨통을 조이거나 양분을 빼앗지 않는다. 가느다란 줄기들이 서로 얽히고설켜며 연대하고, 미세한 기근으로 상대를 살며시 끌어안으며 조화로운 숲의 웅단을 완성해 낸다. 전남광주 통합시 역시 이와 같아야 한다.

무분별한 토건 중심의 난개발이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부족한 부분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녹색도시' 지향을 위한 연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서양의 아이비가 외벽을 덮는 획일적인 녹화가 아니라, 우리 땅의 바람과 흙에 적응해 온 털마삭줄처럼 지역민의 삶과 밀착된 '소통의 생태학'을 실천할 때다. 다가오는 울여름, 남도의 숲길에서 털마삭줄의 하얀 바람개비 꽃을 마주한다면 그 질긴 덩굴이 건네는 연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길 바란다. 털마삭줄처럼 서로를 살리고 함께 오르는 단단한 초록의 그물망을 엮어낼 때, 비로소 전남광주통합시는 지속 가능하고 향기로운 '녹색수도'로 그 찬란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https://species.nibr.go.kr/index.do> /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http://www.nature.go.kr/kpni/index.do/> / 국가표준식물목록

김영선 환경생태학 박사



가지마다 소담스럽게 피어난 털마삭줄.



# 해피니스CC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2026.6.29(월)~2026.8.3(월)

해피니스CC (전남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p><b>대회일정</b> 예선 : 2026.6.29~2026.7.27(매주 월요일) 본선 : 2026.8.3(월) 오전 7시 티업</p> <p><b>경기방식</b> 신페리오 방식 대중제코스(하트, 히든, 힐링) 18홀 샷전 - 남성(화이트티), 여성(레이디티)</p> <p><b>참가대상</b> 만 20세 이상 남·여 순수 아마추어 골퍼</p> <p><b>참가접수</b> 해피니스C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p> <p><b>시 상</b> 출인원상(대회 최대 1억원, 복수 발생 시 비용 보장 및 시상금 1/N 지급) 본선-신페리오 우승(1명), 메달리스트(1명) 외 10명 시상 / 행운권 추첨(20명, 해피니스상품권 10만원)</p> <p><b>문의 예약실</b> 061)330-5001~4 경기팀 061)330-5021~2</p>	<p><b>참가비</b> 예선 : 30,000원 / 본선 : 50,000원 (중식+출인원 보험료 포함) / 입금 확인 시 참가 확정</p> <p><b>입장료</b> 회원 : 55,000원(카트비, 기본요금 별도) 비회원 : 115,000원(카트비, 기본요금 별도) 대회 7일 전 취소 가능하며 이후 취소는 참가비 전액 반환 불가</p> <p><b>납부방법</b> 접수 후 참가비 입금 - 참가비계좌(광주은행 001-127-012075) 예금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입장료는 현장 결제</p>
--	---



참가신청QR

\*위 내용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경우로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피니스CC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